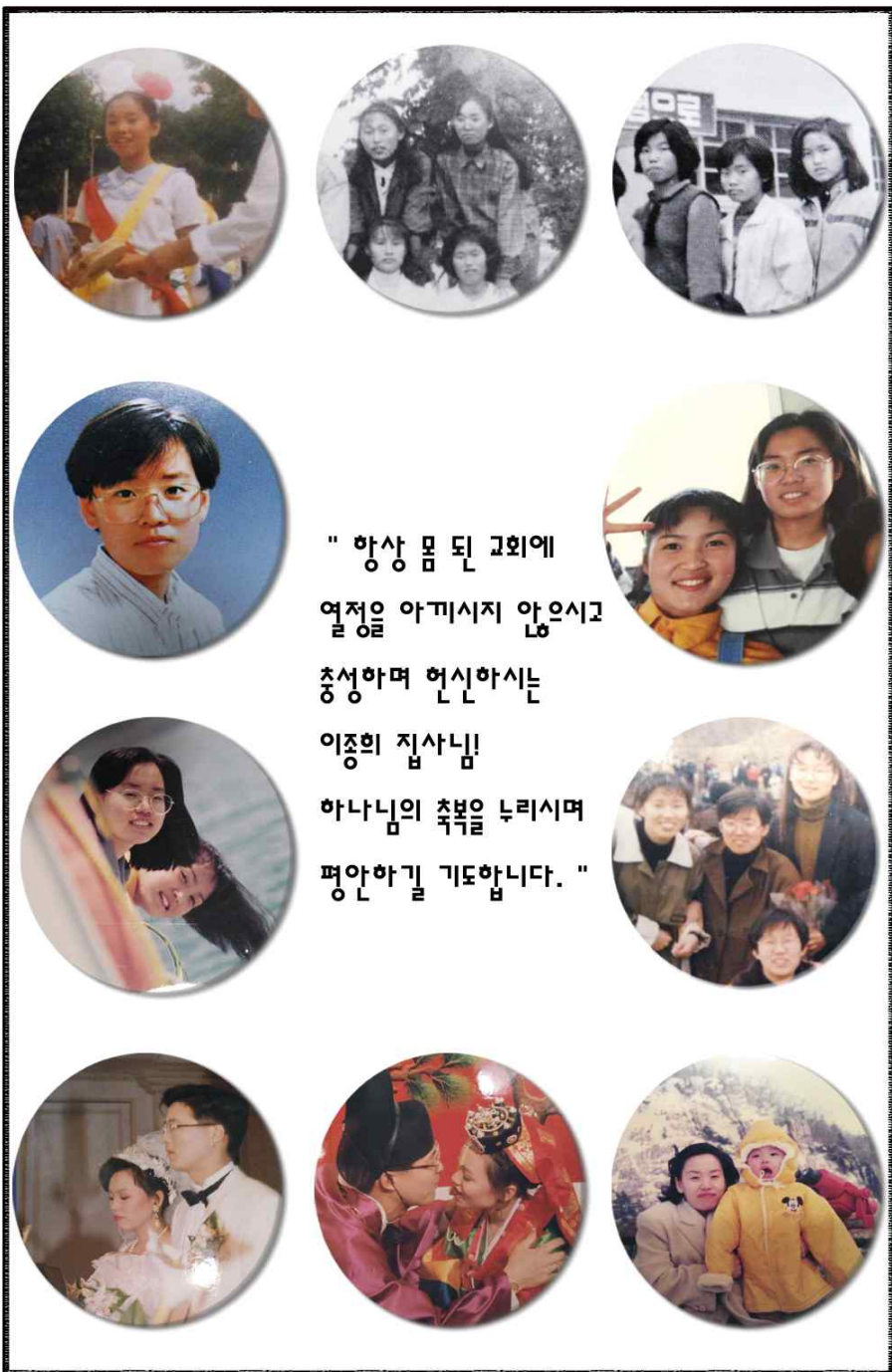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2호	발행일 : 2017. 4 . 2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	--	--



<이달의 간증>

조은희 권철

Life지 1주년을 맞이하며 문서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이야기로 Life지를 꾸미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각자 한 부분씩 맡아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다. 나에게는 간증 글이 주어졌다.

처음 시작부터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이어 나가야 하는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 해 줄 만한
간증이 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더욱 막막했다.

막막함을 3월 라이프지 제본작업을 하며 다른
성도님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 나에게도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고 나는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중학교 때였다. 교회에 가서 학생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어려서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 하라고... 그
때는 대수롭지 않게 그 말씀을 넘겨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잠
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이나 기도를 시작
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세요' 라고 매일
밤 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중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그 후로는 구체적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
다.

'주님 첫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유부단하게 착
한 사람 아니고요.. 멍고 꿈움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의지해
살다가 처자식 건사 못하면 안되잖아요.

네 번째는 같이 돌아다닐 때 창피 하지 않을 정도로만 못 생기지
않으면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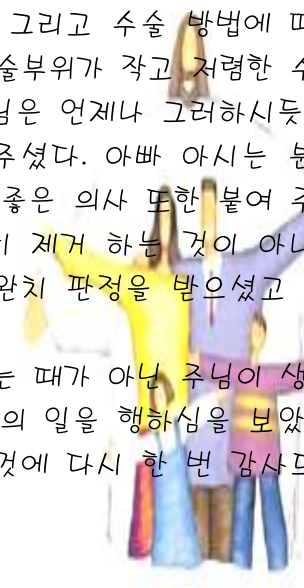
다섯 번째는 불협화음 내는 형제가 많은 집 보다는 외동 아들이 좋아요.



여섯 번째는 혹여 이 조건들이 다 충족되는데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중 한분만 계신다고 하면 저는 어머님이 계신편이 좋아요.' 하고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다. 또 가족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
했다. '주님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 할 수 있게 해 주세
요. 혹여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빨리 발견하고 치유해서 그 고통들
로 인해 오랫동안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
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식으로 저녁 기도를 마무리 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몇 년 주님은 정말이지 내 기도에 한 치에 오
차도 없이 그런 사람을 좋은 때에 보내 주셨고 결혼 할 수 있게 축
복 해 주셨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의 기도 또한 정말 좋은 때에 들
어 주셨다. 친정아버지가 언젠가부터 몸이 불편함을 이야기 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안쪽에 숨어 잘 보이지도 않는 암
덩어리를 영사판독관이 보게 하셨다. 그 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다.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 비용
이 달라지는데 비싼 장비로 받으면 수술부위가 작고 저렴한 수술의 경
우는 흉터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하시듯 정말 적
당한 시기에 좋은 사람 또한 붙여 주셨다. 아빠 아시는 분을 통하
여 다른 대학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좋은 의사 또한 붙여 주셔서 수
술 부위는 최소화하고 신장도 완전히 제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절제로 살려 둘 수 있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일상생활
또한 편하게 하고 계신다.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의 일을 행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라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주
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이종희 집사-

12. 제가 아는 집사님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랄까? 지금과는 사뭇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시다. 지금의 리더십 있고 열정 있으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헌신에 모습으로까지 변화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 또한 소상히 밝혀 주세요. 은혜 받고 도전받고 싶어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나, 리더십이 있다고는 생각 해 본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그 자리에서 그동안 잘 안 해왔던 일이니, 서툴게 이어갈 뿐이죠. 말씀을 되짚어 가면서요. 요런 땐 어떡하지? 또 요런 땐 어떡하지? 하면서요. 내성적 성격이 맞아요. 지금도 순간순간 생각이 골방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나오려고 해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하죠.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골방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시간투자는 직업이 없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같이 직장 없는 우리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은 제게 경험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행하지 않으면 꼭 후회할 일이 벌어지던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감동을 주심은 이행 하라는 뜻인걸 알아요. 그래서 나름 성실하게 감동을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13. 집사님은 우리 교회 울동 팀에서 최고로 울동을 잘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선 앞으로 우리 교회 울동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꿈꾸고 계신지요?

춤이라고는 춤도 모르던 사람이 김미진 집사님과 늘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울동을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절대로 최고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교회에 울동 팀이 세팀이 있잖아요. 천명의 성도를 이루면 열팀정도 만들 어지지 않을까요? 남무단도 만들고요. 10팀이 다 같이 울동헌신예배 드리고 천국가면 좋겠네요. ^^

14.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 는 3월 생활 실천표어로 기도하시며 어떤 땅을 밟고 들어 가셨는지 궁금해요.

축복의 땅은 이미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 심방도 그렇고 송구영신예배 말씀, 신년 첫 예배말씀 모두 어마어마한 축복말씀 이셨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내내 설렘이었어요. 이 삼월에 하나님은 제게 행복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사역중이지않아요.~

어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그 직분을 맡은 자면 모두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구역이든 기관이든 그곳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 보람 있고 감사합니다.

1. 지나오신 어린이시절과 10대 20대 30대를 소상히 회상해 주세요.

어릴 적엔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가정 통신문에 말을 안한다고 쓰셨을까요~ㅋ

10대에는 공부만 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인문계에 안 보내주신다고 아빠가 말씀하셔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가고 싶어서 밤낮 공부했어요. 중3 연합고사 마치고서 가정과외를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깡말랐었고 놀 생각도 없고 성격이 놀지도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왕따를 당한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친구 없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그런 모습 볼 때면 기도 해 주게 되더라고요.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학교를 다니다 말았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 날마다 했습니다. 맨날 울었어요.^^ 진심입니다. 사는게 버거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죠. 친정으로 ㅋ

30대는 믿음의 길을 걷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을 전 지혜롭게 주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대학시절 지금의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이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jms 인데요. 그곳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지상천국이었어요. 그 때에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제가 1번에서 친구가 없었다고 그랬지요? 거기는 다 친구예요.

그러니 마음 여린 이종희 집사가 혹하지 않겠어요? 밥도 잘 주고 한 달에 몇 번씩 총재님 고향인 월명동에 가서 말씀을 들었죠. 거긴 대부분 대학생들이 신도들이었어요. 방학이면 알바가 아니라 사업을 하러 서울에 갔어요. 지하철에서 불우이웃돕기 빙자 앵벌이를 했어요.

이제와 생각 해 보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불우이웃을 돕는 줄 알았어요. 교육은 성경책으로 하지 않았어요. 30개론 새 말씀을 들었죠. 대부분 성경을 그들의 편의대로 해석해놓은 것들입니다.

누구든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계속 받다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무식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

3. 지금의 남편과 만나면서 그 집단에서 나오게 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계기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남편 덕에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 집단은 결혼을 축복식으로 합니다. 동산에 사람들을 풀어놓죠.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가서 허락을 받는대요. 제가 축복식을 안 해봐서 더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거기서 허락한 교제와 결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 저절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4. 남편의 어떤 모습에 홀딱 반하셨나요?

홀딱 까지는 아닌데……. ㅋ 남편의 첫인상을 잊지 못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몇 마디 하는데 말씨에 당진 사투리가 짙게 나타났어요. 사람이 선해 보였습니다.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을 말로 호리는 달고 달은 언변에 능한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그 사람은 순수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는 그랬어요.^^

5. 남편과 만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와 가장 괴로웠던 때는요?

가장 즐거웠던 때는요, 아니 즐겁다는 표현보다는 행복하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나이가 먹으면 다 잃어버려서 기억도 안 나잖아요. 최근 걸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부부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어요.

엿그제 3월 12일 결혼 기념일 날예요.

사실 선물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밥도 하나님이 사주셨어요. 남편은 저랑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선물 앞에서 멘트만 날렸을 뿐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멘트지 궁금하시죠? 저보고 오래 같이 살재요.^^ 별말 아니지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느껴졌고, 이 사람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다 여겨졌습니다.

괴로웠던 때는요. 20대 때요. 1번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삶이 힘들었어요. 남편과 밥을 오붓하게 먹어 본 적이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늘 혼자 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시로 전화 와요. 밥 먹을까? 밥 줘. 이런 말 해줘요. 어느 분은 이런 말 지겹다 하시는데 전 아직 지겨울 때 아니예요. 그런 말 들어본지 얼마 안됐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던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 남편은 다섯 시만 되면 돌아와서 밥차리라고 한대요. 저랑 있다가도 그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곤 하더라고요. 밥차리러요. 그게 부러웠어요.

6. 부모님께서서는 철부지 어린 나이에 결혼하겠다는 집사님을 보시고 어떤 반응이셨나요?

엄마 : 남편이 집으로 인사 온 날 엄마는 장사하러 가셨어요. 저는 내심 서운했죠.

제가 저지른 일은 생각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날 남편 얼굴 못 보셨죠. 그런데 그건 저의 오해였어요. 딸 배우자에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빠듯하니 돈은 버셔야 했기에 장사를 간 것인데 그날따라 장사가 안 되는 바람에 늦으신 거고 허둥지둥 혈값에 넘기고 오셨는데 사윗감은 가고 없으니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저 같은 딸 낳을까봐 딸에 대한 애착이 제겐 그다지 없나봐요.~~

아빠 : 아빠가 처음 욕을 하셨어요. 저 대학 들어가서 동네방네 자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그만두고 결혼한다하니 어의도 없으시고, 힘 빠지시고 기가 막히시잖아요. 그래도 병관이 낳아 데려가니 너무데데한 아들 손자 동네방네 자랑 하시더라고요.^^

7. 생각만 해도 흐뭇한 귀하고 훌륭한 두 아들을 두었는데요.~

두 아들 자랑 실컷 해 보세요.

병관 : 남편의 성격 중에 참 존경스러운 성격이 있어요. 과거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 지라도 지금 그러하지 않다면 과거를 들추지 않고 선하게 대해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더라고요. 병관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싶어요.

병연 : 병연이네요. 누구 험담을 안 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 험담하는 말 들어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역시 아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8. 딸만 키우는 부부는 아들 있는 부부가 부럽습니다. 집사님은 아마도 딸 있는 부부가 부러우시지요? 어떤 부분들이 부러운지요?

딸들과 옷 같이 입고, 쇼핑 같이 하고,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부럽습니다.

생일 기념일 세세히 잘 챙겨주는 모습도 부럽고요.

9. 만약 두 아들 중 지금 결혼하겠다고 선택감을 데려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답해 주세요.

결혼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을 저질렀으면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시키고, 공부는 계속 해야겠지요~ 일은 없는데 살고 싶어 그렇다면 마음껏 연애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해주겠다고 타이를 겁니다.

10. 연로하신 친정 엄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울동 헌신예배 때 엄마가 앞에 계시는데, 밝고 기쁜 찬양에 눈물이 났습니다.

허리만 아프시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주님 믿으시기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11.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이유까지 말씀해 주세요.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화목은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포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지>

못난이 내 사랑 유종호에게

연애 때 쓰고 오랜만에 편지 하려고 하니 어색하고 쑥스럽구만...
우리가 만난지 벌써 15년 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지키느라 참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지?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니고 놀러 다닐 때 자기는 그 모든 것을 포기 하고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도 많았어.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줘서 고마워..
신혼 초에는 싸우기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나는 주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요즘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알았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중인데...
큰 것을 바라지 않아. 사소한 일상 생활에서의 즐거움을 바라는 거지~
꼭 좋은 곳에 데려가고 맛있는 것을 사줘야 행복한게 아니더라고~~
날씨 상쾌할 때 아이들처럼 같이 잠깐의 산책 또한 행복했고...
세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행복하고 우리 서로 마주보며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일상들이 내겐 더 없이 행복하다는거 자기도 알지?
당신은 당신 스스로 작아 보인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당신을 그 어느 누구보다 믿고 자랑스러워해.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당신을 그렇게 가꿔두지 않길 바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처럼 계속 보여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노력했던 아빠의
모습을 잊지 않으리라 믿어. 그리고 나도...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만물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열정과 노력을 기쁘게 받아 주실꺼라 확신해.
앞으로 살아갈 날과 함께 할 날이 더 많은 우리니까...
좀 더 힘을 내어 보자. 우리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더 좋은 날이 올꺼니까!!!
우리 다섯 식구 더 노력하고 더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풍성히 받는 온전한 가정 만들자고요~~~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의 아내 정현미

16. 잠이 많은 집사님께서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고 계십니다. 잠의 유혹을 이기고 기도하시면서 받은 은혜와 열매를 또 소상히 말씀 해 주세요.

새벽 예배를 제가 성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질문은 제게 솔직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것 중의 하나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전수현 권찰님요. 저는 어쩔 행복한 희생양인 것 같아요.^^

전수현 권찰님께서 제게 새벽 예배 갈 때 데려가 달라고 말씀 하셨을 때 그 순간 매우 기뻐요. 그 당시 제가 새벽 의지는 약한데 기도 제목이 있었으므로 새벽에도 열심히 잠을 이기고 기도해야 했으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이뤄진 다음에도 제가 가야 하더라고요.^^ 더 자고 싶은데 말이지요. 권찰님이 기다리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권찰님을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만드시고 계시겠지요.^^ 낮에 봉사도 열심히 하시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분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권찰님은 주님 체험도 생기고 은혜도 많이 받으십니다.

같이 새벽에 다니다보니 그러한 주님 체험들을 누구보다 먼저 서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도전도 받고 기도 해 주는 그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었지요. 새벽 파트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의도에 많이 빗겨 갔네요. 작성하고 기도 한 것은 병연이 대학입시였습니다.

기도에 응답 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또 한 번의 일이었습니다.

17. 오직 집사님이 쓸 수 있는 10억을 현금으로 생긴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어요?

일단 십일조를 드리고요.

주차장 주변의 발을 사서 공구리 처서 주차장 만들고 싶어요.

우리교회 주차시설이 아쉽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은 익숙하지 못하여 저 아래에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는 현실입니다. 10억 정도면 가능하겠지요?^^

18.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겼는데 얼굴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집사님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송구스런 질문인거 같아요. 전 제가 동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꼭 염색을 해야 하구요. 팔자 주름 때문에 필러를 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거든요. 이 질문 답변은 패스할게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위원장님께 혼날 것 같긴 하네요. ㅋ

굳이 답변 해 드리자면 주님의 은혜^^ 라고 답 해 드리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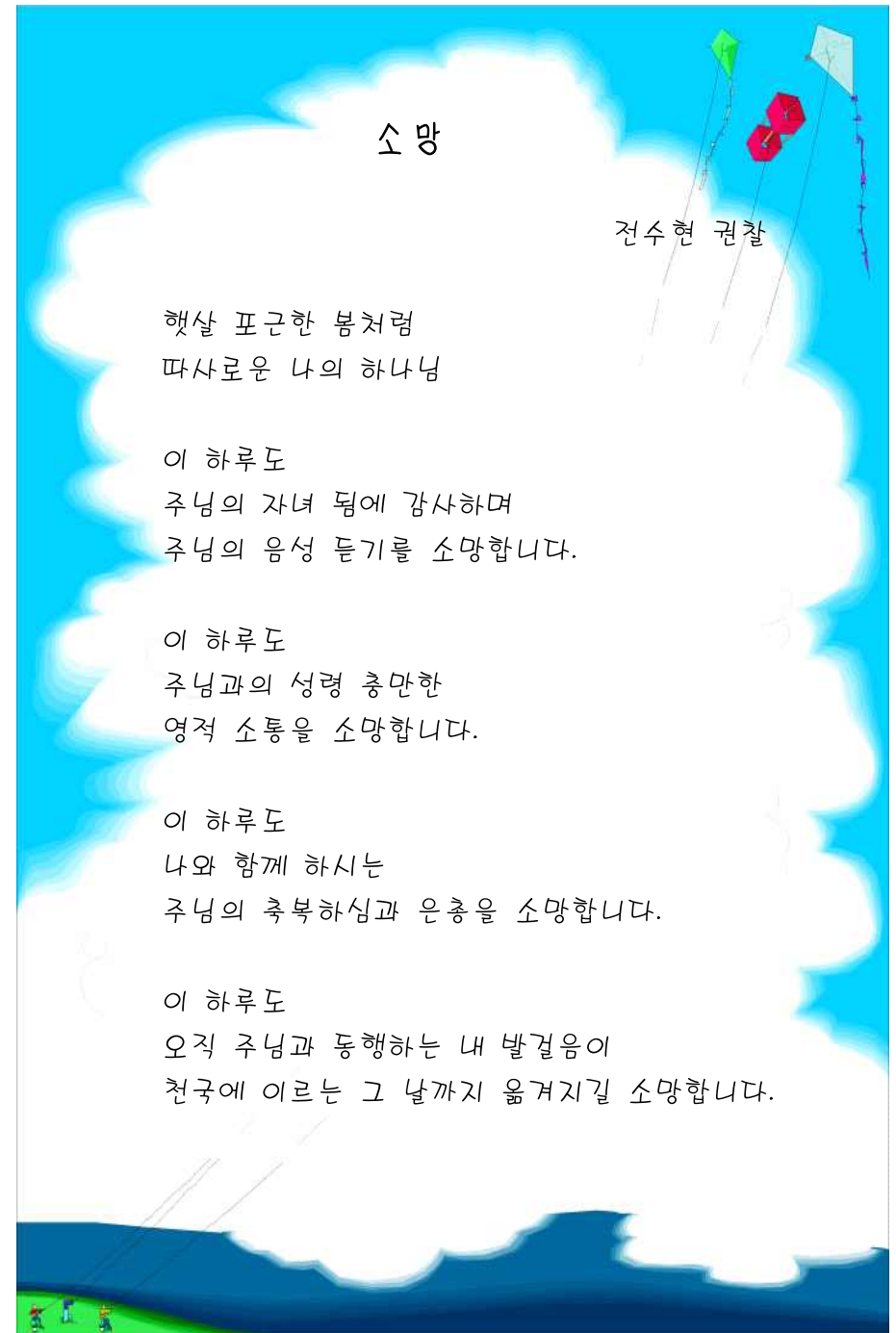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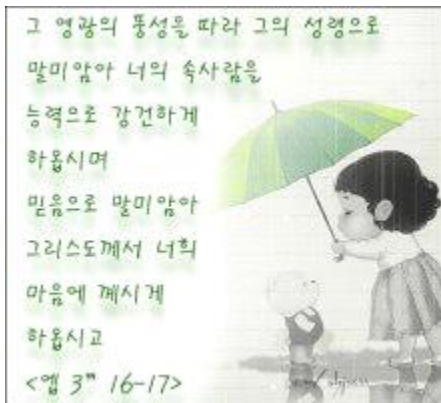
19. 부부 중 홀로 믿는 분들은 대부분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걸 첫 번째 소망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함께 믿는 그 순간을 상상하시면서 기쁨을 표현해 보세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믿을 때의 신앙의 모습요. 남편에게 순종의 은사를 허락 해 주서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역장님 기관장님 그리고 믿음의 윗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사를 선물 해 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것이 교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 나갈 때 순종하는 부부로서 샘플이 되고 싶고요. 함께 가족 찬양 부를 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찬양 부르고 있겠네요. 아예 예배 때는 우리 신랑이 치킨과 과일을 전 성도에게 쏘지 않겠어요?^^ 성도만찬 때엔 가위와 집게를 들고 자신은 먹지도 않고 고기를 굽고 있겠네요. 아마 생선을 수시로 잡아서 목사님께 회를 떠드리는 일이 빈번할 것이고, 성도들에게 매운탕을 대접 해 드리겠네요.

울동 대회 때……. 음……. 그 모습은 상상이 안 되는데……. 구역장님 말씀에 순종하여 꼭 참석 할 거라 믿습니다. 저는 환호를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으레시데스(너무 기쁘다)” 예요^^

20.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과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이후 50대와 60대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사실지 스케치 해 주세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건 우리 두 아들이 결혼을 했을까요? 손주가 있겠네요. 손주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야겠네요. 요즘 운동을 하는데 많이 뛰면 무릎이 아파요. 관절이 약해지는 가봐요. 관절이 튼튼한 중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다. 효도관광 열심히 따라 다닐 거 같고요. 기도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구역장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소망

전수현 권철

햇살 포근한 봄처럼

따사로운 나의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의 자녀 됨에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의 성령 충만한

영적 소통을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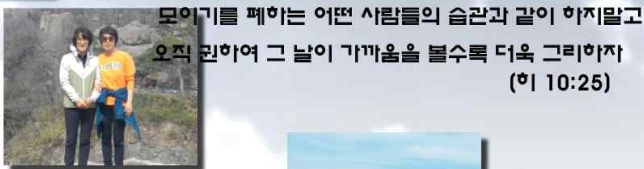
주님의 축복하심과 은총을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내 발걸음이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옮겨지길 소망합니다.

등산대회 (선운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편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 예진, 지은에게

사랑하고 고맙고 예쁜 두 딸 예진아~ 지은아~~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나를 24년이란 긴 시간을 어떤 힘과 능력으로
떨래야 떨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귀하고 감사한 관계를 주님께
받았구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참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 이렇게 성인으로
잘 설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마음이다.

자라는 동안 열악한 환경이 독이 아닌 약이 되게 해 달라고 엄마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었다.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지. 지금 너
희들은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지.. 이제 세월이 훌쩍 지나 지
금 엄마의 나이만큼 세월이 지났을 어느 날 뒤 돌아본 청년의 그
때가 후회의 시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앙에서도 생활에서도 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딸들이 되기를~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예비 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자신의 달란트를 귀히 여기며 진로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더 많은 것을 이야기 하고 더 많은 것을 부탁하고 싶지만 너희들은
이미 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을 거란 걸 알아.

더 이상은 잔소리 같겠지?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주의 날을 함께 바라 볼 수 있는 가정을

소망하며 기대한다. 너희들 뒤에는 든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신단다.

사랑한다

큰딸 예진, 이쁜 둘째 지은아~~

엄마가

<기도>

송미숙 권찰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 하시는 우리들의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내 안에 항상 주님은 계셨지만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세상에 빠져 모든 삶에 감사를 모르고 살던 죄악 된 저를 주님은
끝까지 손을 놓으시지 아니하셨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는 주를 떠나지 말며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게 하소서.

주님을 잠시 잊고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저를 위한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슬픔 속에 감사를 찾게 하시며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저를 먼저 택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축복 받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더 많은 성경의 지식과 주의 말씀으로만 행하여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품에 안겨주신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게 하소서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섬기겠나이다.

주님 믿는 남편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저의 사명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 사명 꼭 이루게 하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환경을
열어주시어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이 따르사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의 협력자가 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할 때 치유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남편의 허리통증과 하은이의 변형된 발과 균형이 틀어진 모습들까지 회복
되길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능력의 주님만 믿고 구하게 하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남편과 하은이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안에 임하게 하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마련 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정 이루게 하소서.

가정에 찬양이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여

오직 성령의 하나님만 느끼게 하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올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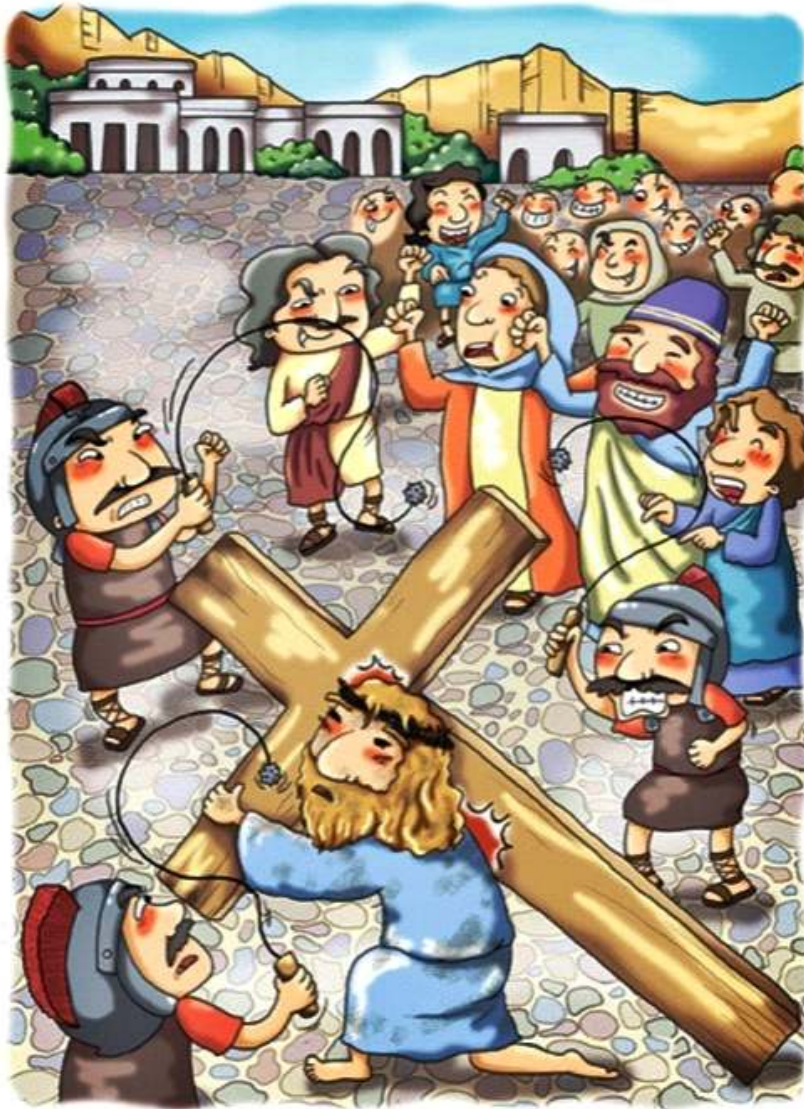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숨은그림찾기>

▶ 숨은 그림 찾기- 붓, 아이스크림, 물고기, 찢술, 자



* 제2회족구대회*



날마다 마을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2:46)



* 전 도 대 회 *



전도대회 다녀와서....

봄 기운이 완연한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전도위원회를 주축으로 드보라 여선교회와 그 외 여러 성도님들이 손을 맞잡고 2017년 첫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대한 열정과 부담을 안고 있었기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시간과 물질 환경과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음료와 과자, 물티슈와 전도지 등을 들고 신터미널에서 주공 아파트 주변에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를 알리는 한편 터미널 주변을 돌아다니며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전도대회를 기대하며 올해 표어처럼

전도의 열매를 통한 교회지경이 넓어지길 기도합니다.

짧은 글 긴 여운

불행을 이용하라 ...

불행을 슬퍼하지 말고

불행을 출발점으로 삼아라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때로

희망의 토대가 된다 - 발자크 -



행복이란,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

불행이란,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발을 동동구르며 분해하는 것.

노후에 꼭 다니고 싶은 대학

요즘 노인들 사이에 노년생활을 대학에
비유한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서울공대" -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는 것

"동경대" - 동네 경로당 다니는 것

"부경대" - 부부가 경로당 같이 다니는 것

"전국대" -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내는 것

"연세대" -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

"고려대" -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지내는 것

"서강대" - 서로 위로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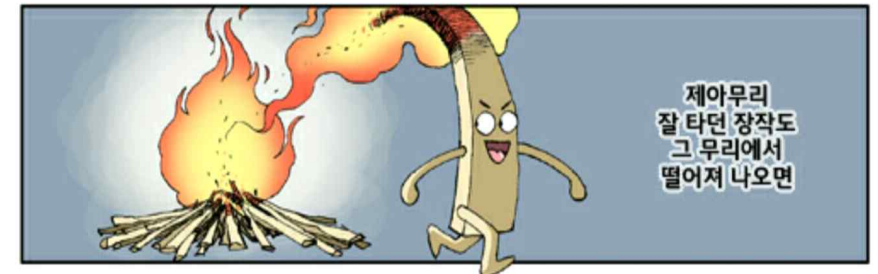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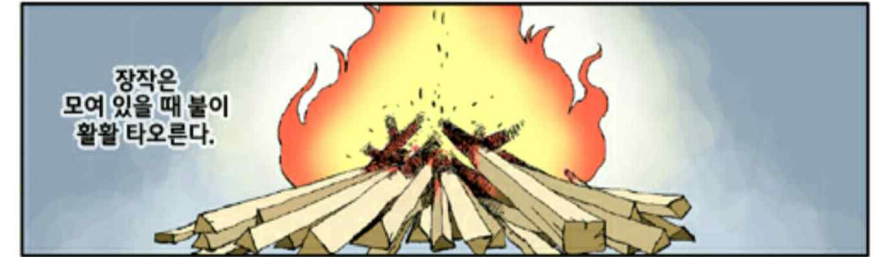
"건국대" -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사는 것

요즘 뜨는 최고로 좋은 대학은 "해병대" 라고 합니다.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는 대학이랍니다.

우리 모두 남은 여생 "해병대" 로 갑시다.

* 모여 있을 때... - essay.289 -



* 성령충만, 은혜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교회가 무척이나 시끌벅적한 한 주였습니다. 유치부실 환경미화를 위해 여러 성도들의 분주한 손과 발걸음으로 가득하였지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로 쓰임 받는 시간을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꼬맹이들의 유치부실이 환하고 깔끔하게 단장되었지요. 함께 페인트칠과 게시판 꾸미기 그리고 뒷정리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성도님, 권찰님, 집사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꼬맹이들이 너무나 신나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주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

겸손을 통한 평화

어느 나라에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 풀, 꽃 하나 하나를 정성으로 가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아침에 정원을 나가 보니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문 옆에 서 있는 떡갈나무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떡갈나무야, 무슨 일이 있었니? 도대체 왜 다들 시들어 있지?” “나무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못하다고 실망하고 있어요.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포도나무는 복숭아나무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또 제라니움은 라일락처럼 날씬하지도 못하고, 향기도 없다고 불평입니다.” 그런데 모두 시들어 있는 중에도 유독 생기 있고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꽃은 바로 팬지(Heart-peace)였습니다. 왕은 그 꽃에게 물었습니다. “팬지(마음의 평화)야, 다들 슬픔 속에서 시들어 가고 있는데 너는 작은 꽃이지만 곳곳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 짐의 마음이 매우 기쁘구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볼품이 없는 꽃이잖아요.

하지만 왕께서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복숭아나무 혹은 라일락을 원하셨다면 저를 뽑아 버리고 그들을 심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왕께서 저를 심으신 것은 저를 보시면서 마음에 평화를 느끼기 위함이란 것도 알지요. 그래서 저는 왕께서 저를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왕은 이후로 더욱 팬지꽃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 우화의 교훈처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갑니다. 또 이웃에게 평화의 마음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렁이

◎ 이달의 교회소식

1. 마리아여선교회 헌신예배 / 4월 2일 오후 7:30
2. 종려주일 / 4월 9일
3. 고난주간 특별금식 새벽기도회 / 4월 10일~15일
4. 성찬식 및 세족식 / 4월 13일 오후 7:00
5. 드보라여선교회 헌신예배 / 4월 30일 오후 7:30

◎ 공지사항

1. 4월 생활실천표어 / 너의 영성을 회복하라
2. 4월 신앙서적 / 찰스 스펀전의 은혜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이달에 issue>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TV를 켜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봄철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이다. 옛날에는 황사가 다인 줄 알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터는 미세먼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초미세먼지가 문제라며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체에도 미세먼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석탄 등의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 대기권의 질이 나빠지고 그 나빠진 공기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 오다보니 우리나라 대기권의 질 또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미세먼지들이 대기권의 질만 흐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몸속으로 들어가 축적이 되고 축적된 것들이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작게는 호흡기 질환에서부터 크게는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까지 다양하게 일으킨다. 최근에는 임산부의 조기출산까지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꼭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이나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을 사용하여 직접 맞는 것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리고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말고 인공 눈물로 씻어 내고, 목이 칼칼할 때는 가글로 입을 헹구어준다. 그리고 수시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믿음의 말로 자기와 대화하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말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1분당 평균 150~2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과 대화할 때엔

엄청난 속도로 1분당 1,300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자신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연구가들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보다 부정적인 대화

스스로 자신을 패배시키는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부정적으로 대화함으로써

더욱 낙심하며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긍정적인 대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대화를 되풀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

성취한 일, 성장한 모습, 가능성,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원한 신분에 생각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며

긍정적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말씀에 의거해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 담아온 글-



1년을 돌아보며~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서위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어찌 보면 식상하고 상투적일 수 있지만 이전에 1년 정도 해 오다 중단된 순복음 라이프지를 다시 시작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는 그저 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했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은혜를 끼쳤었다. 또 밖으로 나가 전도용으로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신앙적인 면에서부터 실력에 이르기까지 그 때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라이프지를 다달이 발행하면서 성도님들께 죄송한 생각도 많이 든다.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은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매일 그 자리만 맴도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으로 시작한 일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어린 권찰님들이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협력해 주었고 등직한 집사님들도 열정을 다해 헌신하셨다. 미약한 것을 창대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앞으로를 더욱 기대하며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위원들의 큰 헌신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축복 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 또한 우리 위원들을 위해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

아울러 우리가 이 일을 더 은혜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가길 소망하며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한다. 혼자 가지고 있기 아까운 간증거리들, 그리고 뉴스거리들……. 시도 좋고 편지도 좋고 수필 형식이어도 좋다. 우리 위원들이 다가가 무언가 부탁드릴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거절당해 머쓱한 모습으로 기 죽어 있는 위원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는 걸 아시는지…….이 또한 주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다.

코끝을 싱그럽게 하는 오늘의 봄의 향기와 새싹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생활에 기도예 싹이 틔워지고 열매 맺어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길 소망한다.